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SRPS)의 타당도 연구

이 수 정[†]

김 재 경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비수감자 집단을 대상으로 정신병질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발된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the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SRPS)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본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수감자 집단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비수감자 집단인 대학생들(509명)과 수감자 집단인 재소자들(411명)에게 한국어판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를 실시하였다.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비수감자 집단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출된 요인들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신병질의 구성개념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었다. 비수감자 집단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5요인 모형과 6요인 모형이 추출되었고, 최적의 요인 모형을 선정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요인 모형이 6요인 모형보다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의 수감자 집단에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감자 집단에 대한 5요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수감자 집단에서 도출된 요인 모형은 수감자 집단에 적용하기에 최적의 적합도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한국어판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 도구를 마련하여 그 타당도를 검증하고 수감자 집단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정신병질,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SRPS), 타당도, 요인분석

[†] 교신저자 :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442-76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 94-6
Tel : 031-249-9198, E-mail : suejung@kyonggi.ac.kr

정신병질(psychopathy)은 최근에 부상한 개념으로 오인을 받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신병질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19세기 초 Pinel(1809)은 ‘습관적으로 이기적이며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만, 그런 상황이 정신적 질병의 징후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사람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이들에 대하여 ‘*manie sans délire*’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범죄행동을 설명하였다. 1952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사회병질(sociopath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범죄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설명하였고, 1968년에는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76년에 Cleckly는 ‘정신병질’과 ‘사이코패스’를 정리하여 학계에 소개하였다. Cleckly의 정의에 따르면, 사이코패스(psychopath)는 외관상으로 상당히 정상적으로 보이고 지능도 보통 수준 이상이지만,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며 타인을 목적달성의 도구로 이용하고, 무책임하면서 냉담하며 쉽게 거짓말을 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을 지칭한다. 그 후 정신병질이라는 낯선 개념이 실증적으로 널리 연구되기 시작한 계기는 Hare(1970, 1978, 1986, 1996)에 의해서이다(이수정, 허재홍, 2004).

이처럼 정신병질에 관한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정신병질이 범죄와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격특성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병질적 범죄자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에서는 보통의 범죄자들과 비교하여 정신병질적 범죄자들이 더욱 폭력적이고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며 범죄의 횡수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Hare & McPherson, 1984; Hare, McPherson, & Forth, 1988). 국내 학계에서도 2009년 발표된 한국판

PCL-R의 타당도 연구(이수정, 고려진, 김재경)에서 PCL-R이 측정하고 있는 정신병질의 정도가 우수한 재범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정신병질에 대한 이해와 활용은 범죄 행동을 설명하는 성격 특성에만 국한 되지 않고, 여러 형사사법 분야에서 그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강태신(2009)은 정신병질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범죄 수사에 있어서 Petherick(2003)은 살인사건의 범죄현장을 관찰하여 정신병질적 살인범과 정신증적 살인범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는 PCL-R을 사용하여 범죄자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신병질은 재판단계에서 처우와 처벌 내용에 대한 결정 및 교정기관에서 분류와 치료를 위한 자료로의 활용 등에서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SRPS)는 간단명료한 26개 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도구로 실무에서 활용이 될 경우에는 여타의 정신병질 측정도구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의 절약성이 뛰어난 것이다. 특히 PPI-R이나 PCL-R과 같은 심화적인 정신병질 측정도구를 사용할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사전검사도구로의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도구의 유용성을 밝힐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를 실무에 활용하기 위한 확인적 과정의 일환으로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정신병질에 대한 이해

Hare(1991)의 학문적 성과를 통하여 오늘날의 정신병질에 대한 개념과 특성이 세분화되

어 정립되었다. Hare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현실을 지각할 수 있고 이성적인 사고에 따라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물변별력에 큰 손상이 있는 정신증과는 확연히 차별화 된다고 한다.

Hare가 설명하는 정신병질의 대표적인 특성에는 얕은 감정과 극단적인 자기중심성 및 후회와 죄책감의 결여, 그리고 공감능력의 부족이 있다. Cleckley(1976)에 의하면, 자기중심성은 사이코패스에게 항상 나타나며 변하지 않는 속성 중에 하나라고 한다.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한다.

사이코패스들은 정신병질의 특성을 감추기 위하여 외현적인 가장 행동을 할 수 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될 만한 상황에서 타인에게 친근하고 매력적인 인물로 비취질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인관계는 사이코패스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가처럼 자신을 위장하여 유창한 언변으로 속임수나 거짓말 등의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타인을 이용하고자 자신의 정직성을 강조하며 심오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인 마냥 거짓된 표정과 행동을 연출할 수 있는 교활함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Hare, 1991).

사이코패스들은 자기-패배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생활태도 때문에 비계획적이고 신중하지 못하며 충동적이면서 무책임한 행동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

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 특히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에 대인관계를 갑작스럽게 단절하거나, 직장과 거주지를 자주 옮기는 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자기-패배적인 생활태도는 반사회적 행동과 맞물리면서 범죄적 행위로 발현될 수 있는 특성이다. 특히 행동 통제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격성을 내보이거나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사이코패스들은 범죄행동을 일종의 ‘Game’으로 여기는 경향성이 있다(Hare, 1991).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에 관한 선행연구

Levenson, Kiehl, 그리고 Fitzpatrick(1995)은 비수감자 집단을 대상으로 정신병질을 평가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차적 정신병질 척도와 이차적 정신병질 척도,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 척도가 개발되었다. 일차적 정신병질과 이차적 정신병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도구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이다.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the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SRPS)의 문항은 문헌에 기술되어 있는 정신병질적 특성들과 관련하여 구성되었으며, 특히 Hare Psychopathy Checklist(Harpur, Hare, & Hakisian, 1989)에서 도출된 2요인(대인관계/정서, 사회적 일탈)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일차적 정신병질의 문항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적이고 무관심하며 조작적인 태도를 측정하고자 고안되었고, 이차적 정신병질의 문항은 충동적이고 자기-패배적인 생활방식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일차적 정신병질 척도, 이차적 정신병질 척도, 반사회적 행위 척도는 쉽게 지루함을 느

기는 성향, 탈제지(disinhibition)와 서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스틸과 모험을 추구하려는 경험과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차적 정신병질은 기질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중회귀 분석결과, 반사회적 행위의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는 탈제지와 일차적 정신병질, 그리고 이차적 정신병질이었던 반면에 스틸과 모험의 추구는 반사회적 행위와 부적 상관을 가지는 예측인자로 나타났다. 일차적 정신병질과 이차적 정신병질의 하위 척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각각 .82와 .63인 것으로 드러났다(Brinkley, Schmitt, Smith, & Newman, 2001).

Hare(1986)는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정신병질에 대한 자기보고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는 유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rinkley, Schmitt, Smith, 그리고 Newman(2001)의 연구를 통하여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 도구의 유용성을 밝히는 몇 가지 증거가 제시되었다.

Brinkley, Schmitt, Smith, 그리고 Newman(2001)은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와 PCL-R을 비교하기 위하여 범죄적 활동성과 소극적 회피과제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와 PCL-R의 진단적 일치는 빈약한 것부터 명확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 분포되어 있었지만 두 가지 측정도구 모두 약물남용과 범죄적 다양성의 측정에 있어서 유사한 상관관계의 유형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두 가지 측정도구는 소극적 회피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예측력을 보였다. 이 연구는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의 구인타당도에 관한 증거의 제시와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가 PCL-R과 유사한 하지만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

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가 PCL-R과 유사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검사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의 총점과 PCL-R 총점의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있었고,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의 요인 점수가 PCL-R의 요인 점수와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의 일차적 요인 척도는 PCL-R의 두 가지 요인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이차적 요인 척도는 PCL-R의 요인 2(반사회적 행동)와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의 총점과 PCL-R의 총점 사이의 상관관계는 .35로 밝혀져서 매우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문제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는 Levenson, Kiehl, 그리고 Fitzpatrick(1995)이 수행한 연구에서 비수감자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들의 정신병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개발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비수감자 집단과 수감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국외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의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도를 탐색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래 비수감자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된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가 수감자 집단에도 적용 가능한지에 관하여 비수감자 집단에 대한 최적의 요인 모형을 바탕으로 수감자 집단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조사 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비수감자 집단을 대학생 집단으로 선정하였고, 수감자 집단을 정신병질 자기보고 검사 당시 범죄사실로 인하여 교정 시설에 수용 중이었던 재소자 집단으로 선정하여 표본을 수집하였다.

비수감자 집단은 심리학과 관련된 교양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총 528명의 대학생들을 임의표집하였다. 응답 누락과 불성실한 응답으로 부실기재한 대상자를 제외한 총 509명의 자료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수감자 집단은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들을 제외하고, 남성 195명(38.3%)과 여성 311명(61.1%)으로 구성되었고, 평균연령은 20.91세($SD=2.41$)였다. 입건횟수는 평균 .06회($SD=.33$)로 비수감자 집단 구성원의 대부분이 입건경험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감자 집단은 2005년에 전국 20여개의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었던 재소자들 중에서 임의표집한 366명과 2007년에 국내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들을 임의표집한 51명을 포함하여 총 417명의 수감자를 표본으로 하였다. 응답 누락과 불성실한 응답으로 부실기재한 대상자를 제외한 총 411명의 수감자 집단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감자 집단은 남성 353명(85.9%)과 여성 58명(14.1%)으로 구성되었고, 수감자 집단의 평균연령은 40.30세($SD=10.01$)였다. 최초범행연령은 평균 25.05세($SD=7.83$)였고 전체전과수의 평균은 3.47범($SD=3.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자 집단의 구성원들이 보고한 범죄 사실에는 살인, 절도, 사기, 폭력, 강도, 강간, 약물, 성범죄 등이 있

었다.

측정도구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the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SRPS)는 정신병질의 행동적 특성과 성격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Levenson, Kiehl, 그리고 Fitzpatrick(1995)이 개발한 26개 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도구이다. 26개 문항 중에서 7개의 문항(10, 12, 14, 15, 16, 19, 23)은 응답자의 태도를 고려하기 위하여 역문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모든 문항은 Likert식의 4점 평정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은 진술문을 직접 읽고 각 문항에 대하여 ‘정말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중에서 하나의 척도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Levenson, Kiehl, 그리고 Fitzpatrick(1995)이 대학생 집단을 표본으로 하여 실시한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의 요인분석 결과, 검사의 문항들은 일차적 정신병질 요인과 이차적 정신병질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일차적 정신병질 요인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기적이고 무관심하며 조작적인 태도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차적 정신병질 요인은 충동적이고 자기패배적인 생활방식 등과 같은 행동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번안된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를 사용했으며, ‘생각과 행동 특성 검사’라는 가칭을 사용하여 임의표집한 대상자들에게 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에게는 검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으며, 고의로 자신을 좋게 보이거나 나쁘게 보이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응답자들에게 주지시키고, 4점 척도 중에서 하나의 척도를 선택하여 응답하게 했다.

표 1. 비수감자 집단의 각 요인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공통분
4. 내 인생의 목표는 최대한 돈,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다.	.78	-.01	.01	.02	.06	.04	.04	.01	.62
5. 돈 많이 버는 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70	.08	.07	.02	.04	-.08	.09	-.02	.52
3.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정당화된다.	.39	.18	.05	.02	.24	.06	.11	.08	.27
2. 나에게 있어 올바른 것이란 내가 손에 닿장 쥌 수 있는 것들뿐이다.	.36	.17	.03	.16	.29	.07	.05	-.06	.28
16. 다른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않기에, 속임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R	.12	.58	.14	-.08	.06	-.08	-.10	.37	.26
12. 나는 목표달성을 위해 타인에게 상처 주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R	-.03	.43	-.15	.08	.13	.12	-.01	.12	.26
14. 나는 내 말이나 행동이 다른 이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기분이 좋지 않다. -R	.12	.43	-.23	.08	.02	.27	-.03	-.03	.33
13.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작하기를 좋아한다.	-.04	.42	.10	.24	.09	-.13	.08	-.06	.28
15.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본다고 치더라도 나는 거짓말을 하진 않을 것이다. -R	.14	.42	.08	-.03	.07	.07	.08	.04	.22
11. 나는 진짜 간악한 악당들이 가끔 존경스러울 때가 있다.	.09	.39	.18	.12	.08	-.12	.16	.02	.26
21. 나는 무슨 일든 시작하자마자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는 편이다.	.09	.03	.60	.07	.07	.21	-.04	.03	.42
18. 나는 자주 지루함을 느낀다.	.06	.03	.55	.15	.07	-.01	.05	-.11	.35
19. 나는 오랫동안 하나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다. -R	-.04	.11	.47	-.00	-.04	.46	.13	.06	.46
17. 나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에 봉착한다.	.01	-.07	.43	.25	-.12	-.06	.04	.04	.27
25. 나는 좌절할 때 자주 이성을 잃곤 한다.	-.00	-.04	.24	.75	-.03	.01	.02	.12	.64
24. 나는 자주 사람들과 소리 지르며 싸우곤 한다.	.05	.14	.05	.47	-.02	.25	.01	.01	.30
22. 대부분의 나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05	.12	.14	.31	.08	-.05	.00	-.09	.15
1. 성공이란 어차피 생존경쟁의 결과이다. 나는 패자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25	.03	.03	-.01	.63	-.04	-.03	.16	.49
7. 사기 당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도 싸다.	.03	.23	.04	-.02	.39	-.10	.07	-.10	.23
6. 다른 사람이 고상한 생각을 하거나 말거나 나의 주된 관심사는 언제나 기본적인 욕구충족이다.	.07	.19	-.01	.13	.30	-.05	.29	-.17	.26
23. 나는 무엇이든 시작을 하기 전에 예상되는 결과들에 대하여 세심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R	.07	-.00	.49	.01	-.09	.49	-.11	.03	.26
20. 나는 너무 먼 장래의 일은 계획하지 않는다.	.01	.00	.31	.06	.03	.31	-.02	.06	.14
9. 다른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얘지만 골라서 하면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준다.	.22	.08	.12	-.01	.06	-.15	.72	.09	.62
10. 내가 이룬 성공이 타인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는 기분이 나쁠 것이다. -R	.01	.14	-.06	.03	.00	.09	.05	.58	.37
고유치(Eigen value)	3.48	2.24	1.83	1.58	1.32	1.20	1.05	1.00	13.70
설명변량(%)	13.39	8.59	7.04	6.08	5.07	4.60	4.03	3.86	
누적설명변량(%)	13.39	21.99	29.02	35.10	40.18	44.78	48.81	52.67	
내적적합도(Cronbach's α)	.67	.59	.60	.51	.46	.24			

* 요인 추출 방법: 주축 요인 추출

*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Varimax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요인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국내에서 한국어로 변안된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의 각 문항이 Levenson, Kiehl, 그리고 Fitzpatrick(1995)의 연구에서처럼 정신병질에 관하여 동일한 구성개념을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고자 SPSS를 사용하여 비수감자 집단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공통요인분석모형을 사용하였고, 공통분추정치로는 주축요인추출방법을 이용하였다. 직각회전방식 중 Varimax를 실시하여 추출요인의 해석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은 채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들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산출된 요인구조를 토대로 각 요인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비수감자 집단의 최적의 요인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LISREL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로 산출된 요인모형들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요인부하량이 .30 이상인 문항들만을 선정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요인에 대한 척도를 제공하기 위해 각 요인에 대한 측정변수 1개씩의 요인계수를 1.0으로 고정 시켰고, 추정방식은 최대가능법을 사용하였다. 비수감자 집단의 모형자료에 대한 적합도 평가를 위해 $\chi^2(df)$, NFI(표준적합도), GFI(기초적합도), AGFI(조정적합도), RMR(원소간 평균차이), RMSEA(개략화 오차평균) 등의 적합도 지수들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비수감자 집단의 최적모형을 선정하여 수감자 집단을 해당 모

형에 대입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수감자 집단의 모형자료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결 과

비수감자 집단의 탐색적 요인분석

비수감자 집단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 척도의 하위 구성개념은 8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8요인 중에서 제7요인과 제8요인은 각 1개의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낮은 설명력을 갖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따라서 비수감자 집단의 모형은 6요인으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제6요인의 문항 수가 2개이고 내용상 제3요인의 문항들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요인을 묶어서 5요인 모형을 추가로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검토하여 6요인 모형과 5요인 모형의 적합도 정도에 따라 비수감자 집단의 최적모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각 하위 요인들의 문항 신뢰도 α 값은 .67에서부터 .24까지 나타났다.

비수감자 집단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요인들에 관한 설명을 표 2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제1요인인 '물질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은 인생의 목표와 성공의 초점을 금전과 재물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타인을 이용하고 금전과 재물 이외에 삶의 가치가 되는 것들에 관하여 비판적이거나 무관심하게 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제2요인인 '조작적 대인관계'는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이용하면서도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표 2. 비수감자 집단의 각 요인에 대한 설명

요인	요인명	문항수	설명량(%)	신뢰도 α
제1요인	물질만능주의적 사고방식	4	13.39	.67
제2요인	조작적 대인관계	6	8.59	.59
제3요인	쉽게 지루해하는 성향	4	7.04	.61
제4요인	부족한 행동통제력	3	6.08	.51
제5요인	약육강식적 사고방식	3	5.07	.46
제6요인	비계획적인 생활태도	2	4.60	.24
제7요인 (요인 3+6)	비계획적이고 쉽게 지루해하는 생활태도	6	11.64	.56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요인인 ‘쉽게 지루해하는 성향’은 어떤 일이든 흥미를 쉽게 잃고 그로 인하여 하나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못하는 생활태도를 말한다. 제4요인인 ‘부족한 행동통제력’은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여 자신의 좌절상황이나 타인과의 갈등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생활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제5요인인 ‘약육강식적 사고방식’은 자신보다 약한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의 결여 혹은 무관심한 사고방식을 말한다. 제6요인인 ‘비계획적인 생활태도’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행동을 하거나 사전에 결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행동을 하는 등의 신중하지 못한 생활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5요인 모형에서는 정신병질의 유사한 생활태도를 나타내는 제3요인과 제6요인을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비계획적이고 쉽게 지루해하는 생활태도’를 제7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비계획적이고 쉽게 지루해하는 생활태도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이든 흥미를 쉽게 잃고 지루해하는 생활태도를 말한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정신병질의 특성과 관련하여 보

고한 일차적 정신병질과 이차적 정신병질의 특성들과 잘 부합하고 있다. Levenson, Kiehl, 그리고 Fitzpatrick(1995)의 선행연구에서는 일차적 정신병질(요인 1)의 특성을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기적이고 무관심하며 조작적인 태도 등의 반사회적 사고라고 밝혔으며, 본 연구의 제1요인(물질만능주의적 사고방식)과 제2요인(조작적 대인관계), 그리고 제5요인(약육강식적 사고방식)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차적 정신병질(요인2)의 특성은 충동적이고 자기-패배적인 생활방식 등의 행동적 문제라고 밝혔는데, 본 연구의 제3요인(쉽게 지루해하는 성향)과 제4요인(부족한 행동통제력), 그리고 제6요인(비계획적인 생활태도)과 제7요인(비계획적이고 쉽게 지루해하는 생활태도)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또한 Hare(1991)의 선행연구에서는 정신병질의 특성을 대인간/정서적 특성(요인1)과 사회적 이탈(요인2)의 구조로 설명하였는데, 대인간/정서적 특성은 본 연구의 제1요인(물질만능주의적 사고방식)과 제2요인(조작적 대인관계), 그리고 제5요인(약육강식적 사고방식)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이탈(요인2)의 특성은 생활방식과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생활방식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제3요인(쉽게 지루해하는 성향)과 제4요인(부족한 행동통제력), 그리고 제6요인(비계획적인 생활태도)과 제7요인(비계획적이고 쉽게 지루해하는 생활태도)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가 반사회적인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사회적 행동을 제외한 PCL-R의 요인들과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의 요인들이 대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의 문항들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신병질의 구성개념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므로 정신병질에 대한 구인타당도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비수감자 집단의 확인적 요인분석

비수감자 집단의 최적모형을 밝혀내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상정된 6요인 모형과 5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비수감자 집단의 6요인 모형과 5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적합도 지수는 GFI(기초적합도 지수), RMSEA(개략화 오차평균), RMR(원소간 평균차이), NFI(표준적합도지수), NNFI(비표준적합도지수), PNFI(간명표준적합도지수), PGFI

(간명기초적합도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hi^2(df)$, GFI, RMSEA, RMR을 절대적합도 지수로 검토하였다. 6요인 모형의 χ^2 은 537.42이고 자유도가 194인 반면에, 5요인 모형의 χ^2 은 549.42이고 자유도는 199이다. GFI는 .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두 모형의 GFI는 .91이므로 좋은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RMSEA는 .05 이하일 때 최고의 적합도를 보이지만 .08 이하도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Browne & Cudeck, 1993). 이에 따르면, 6요인 모형과 5요인 모형 모두 .06의 RMSEA를 가지고 있으므로 좋은 적합도는 아니지만 수용 가능한 정도의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 RMR은 분석 자료가 상관행렬일 때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03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두 모형은 좋은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증분적합도지수로는 NFI와 NNFI를 검토하였는데, NFI와 NNFI는 .9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모형은 NFI가 .77로 동일하였고, NNFI는 6요인 모형이 .81이고, 5요인 모형이 .82이므로 좋은 적합도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5요인 모형의 NNFI가 조금 더 높게 나왔으므로 6요인 모형보다는 5요인 모형이 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명적합도로 PNFI와 PGFI를 검토 하였는데, 두 모

표 3. 비수감자 집단의 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의 적합도 지수들

모형	절대적합도				증분적합도		간명적합도	
	$\chi^2(df)$	GFI	RMSEA	RMR	NFI	NNFI	PNFI	PGFI
6요인 모형	537.42(194)	.91	.06	.03	.77	.81	.65	.70
5요인 모형	549.42(199)	.91	.06	.03	.77	.82	.66	.72

형의 PNFI는 동일하였으나 5요인 모형의 PGFI가 .72로 6요인 모형의 PGFI인 .7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므로 5요인 모형이 좀 더 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러 적합도 지수와 간명성의 원리에 의하여 검토해 본 결과, 비수감자 집단의 모형으로는 6요인 모형보다 5요인 모형이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수감자 집단의 5요인 모형을 최적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수감자 집단의 확인적 요인분석

비수감자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된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를 수감자 집단에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최적모형으로 선정된 비수감자 집단의 5요인 모형에 수감자 집단을 대입시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수감자 집단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4에서 살펴볼 수 있다.

수감자 집단의 5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χ^2 는 668.01이고, 자유도는 199이다. RMR이 .03로서 좋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RMSEA는 .09로 보통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의 적합도 지수인 GFI와 NFI, NNFI는

좋은 적합도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 비수감자 집단으로부터 마련한 요인 모형은 수감자 집단에의 적용에 있어서 최적의 모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를 요인분석한 결과, 정신병질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 되었으므로 정신병질 측정에 있어서 참조할 만한 부가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의 문항들이 정신병질의 구성개념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인타당도의 검증을 시도하였다. 국내에서는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의 타당도 연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고, 정신병질 평가도구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대에 따라서 정신병질의 평가 작업을 위한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비수감자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된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528명의 대학생들을 임의표집하여 비수감자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비수감자 집단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 정신병질 자기보고검

표 4. 수감자 집단의 5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의 적합도 지수들

χ^2 (df)	절대적합도			증분적합도		간명적합도	
	GFI	RMSEA	RMR	NFI	NNFI	PNFI	PGFI
868.01(199)	.84	.09	.03	.85	.87	.74	.66

* GFI: 기초적합도지수, RMSEA: 개략화 오차평균, RMR: 원소간 평균차이, NFI: 표준적합도지수, NNFI: 비표준적합도지수, PNFI: 간명표준적합도지수, PGFI: 간명기초적합도지수

사의 하위 요인은 ‘물질만능주의적 사고방식’, ‘조작적 대인관계’, ‘비계획적이고 쉽게 지루해지는 생활태도’, ‘부족한 행동통제력’, ‘약육강식적 사고방식’의 5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의 내용이 Levenson, Kiehl, 그리고 Fitzpatrick의 선행연구(1995)와 Hare(1991)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정신병질의 요인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수감자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된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가 수감자 집단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411명의 재소자들을 임의표집하여 수감자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비수감자 집단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5요인 모형을 최적모형으로 상정한 후에 비수감자 집단의 5요인 모형에 수감자 집단의 자료를 대입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신병질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가적인 정신병질 평가도구로 참조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국내에서 검증된 바 없는 한국판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실무에서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다. 연구결과는 정신병질 자기보고 검사가 정신병질의 진단을 위한 직접적인 도구로 활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후속 연구의 전개로 본 검사도구의 정교화 및 타당화 작업이 완성되어 형사사법과 관련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면, 해당 업무의 시간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절약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내에서 정신병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

구자들에게 본 검사 도구에 대한 구인타당도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과 다양한 정신병질 측정도구의 마련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차 이루어질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수감자 집단과 비수감자 집단 구성원의 성별과 연령이 불균형적이었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정신병질적 특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의 균형화에 주의해야 한다. 둘째, 검사도구의 정교화가 필요할 것이다. 자기보고식 검사의 단점인 반응왜곡경향을 통제하기 위한 타당도 척도 문항을 추가해야 할 것이고, 낮은 신뢰도를 가진 문항들은 수정하거나 효과적인 문항들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의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연구하여 적합한 문항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정신병질 평가는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사법 분야에서 활용되어야 하므로 수감자 집단을 대상으로 범죄와 관련된 정신병질 평가에 관한 연구들이 시도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정신병질적 범죄자들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정신병질 측정을 위해 개발된 다른 검사도구와의 비교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에서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는 여러 정신병질 측정도구들의 국내 도입 및 한국화 작업의 수행이 필요하다. 다른 검사도구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좀 더 높은 정확성과 예측력을 가진 검사도구로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태신 (2009). 청소년 사이코패스 성향의 예측 요인.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수정, 허재홍 (2004). 잠재적 범죄위험요인으로서의 정신병질(psychopathy).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39-77.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 Brinkley, A. C., Schmitt, A. W., Smith, S. S., & Newman, P. J. (2001). Construct validation of a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does Levenson's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measure the same construct as Hare's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 1021-1038.
- Cleckley, H. (1976). *The mask of sanity* (5th Ed.). St. Louis, MO: Mosby.
- Hare, R. D. (1970). *Psychopathy*. New York: Wiley.
- Hare, R. D. (1978). Electrodermal and cardiovascular correlates of psychopathy. In R. D. Hare & D. Schalling (Eds.), *Psychopathic behavior: Approaches to research* (pp.107-143). New York: Wiley.
- Hare, R. D. (1986). Twenty years of experience with the Cleckley psychopath. In W. H. Reid, D. Dorr, J. I. Walker, & J. W. Bonner III (Eds.), *Unmasking the psychopath* (pp.3-27). New York: W. W. Norton.
- Hare, R. D. (1991).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Toronto: Multi-Health Systems.
- Hare, R. D., Hart, S. D., & Harpur, T. J. (1991). Psychopathy and the proposed DSM-IV criteria for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391-398.
- Hare, R. D., & McPherson, L. M. (1984). Violent and aggressive behavior by criminal psychopath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7, 35-50.
- Hare, R. D., McPherson, L. M., & Forth, A. E. (1988). Male psychopaths and their criminal care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719-714.
- Harpur, T. J., Hakstian, A. R., & Hare, R. D. (1988). Factor structure of the Psychopathy Checklis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741-747.
- Harpur, T. J., Hare, R. D., & Hakstian, A. R. (1989). Two-factor conceptualization of psychopathy: Construct validity and assessment implications.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 6-17.
- Levenson, R. M., Kiehl, A. K., & Fitzpatrick, M. C. (1995). Assessing Psychopathic Attributes in a Noninstitutionalized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1), 151-158.
- Petherick. (2003). The role of profiling in American society: Criminal profiling: What's in a name? Comparing applied profiling methodologies. *Journal of Law and Social Challenges*, 173, 1-26.
- 1 차원고접수 : 2011. 2. 10.
심사통과접수 : 2011. 3. 8.
최종원고접수 : 2011. 3. 23.

The Study of Validity on the Self-Report Psychopathy Scale(SRPS)

Sue Jung Lee

Jae Kyung Kim

Criminological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SRPS) and investigate the application possibility of the scale in a institutionalized population. The SRPS was developed to assess psychopathic attributes in a noninstitutionalized population by Levenson, Kiehl, & Fitzpatrick (1995). The samples consisted of 509 undergraduates (as noninstitutionalized sample) and 411 prisoners (as institutionalized sample).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ith the noninstitutionalized sample provided the evidence for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SRPS. The result of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the noninstitutionalized sample confirmed that 5-factor model was fit to the data. 5-fact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institutionalized sample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adequacy of fit in association with the application possibility of the SRPS in a institutionalized population, The result confirmed that the SRPS was a reference data rather than a good scal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Finally the directions for future study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sychopathy, psychopath, the Self-Report Psychopathy Scale(SRPS), validity, factor analysis*